

##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임현정\*\* · 김난옥\*\*\*

### 초 록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 1~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중학교 1학년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를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집단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성숙도와 그 하위영역에 있어서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학교활동 경험 정도와 그 변화 양상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변화 형태에 따라 동아리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수는 4개(비참여집단, 참여저조집단, 후기참여집단, 참여집단),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수는 4개(비참여집단, 초기참여집단, 중간집단, 참여증가집단)로 구분되었다. 또한 학생의 가정배경과 초기 자아개념을 통제한 이후에도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 참여 양상의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참여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았으므로, 학교에서의 동아리 및 학생회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와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진로성숙, 동아리, 학생회, 잠재계층성장분석

\* 본장의 내용은 제4회 한국교육중단연구 학술대회에서 김난옥, 임현정(2010)이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doongry@kedi.re.kr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kno213@kedi.re.kr

## I. 서론

진로를 결정하는 일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진로 선택은 개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로는 특정 시점에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발달로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준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험의 폭을 넓히며, 학부모와 교사는 지속적인 격려를 통하여 의사결정 능력, 자아인식, 자아존중감 등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직업세계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일찍부터 흥미와 적성, 소질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진로발달은 실제 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을 통해 일정 부분 이뤄지므로 학교와 또래 요인은 진로발달에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성경, 2008). Super(1976)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탐색기로서 학교생활, 여가활동,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박완성, 2007,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후의 교육이나 일의 선택에 있어 지속적이며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진로탐색 관련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고재성,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은 진로가 생애 전반에 걸쳐 발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폭넓게 가지면서 청소년기에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을 완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 시기 진로발달의 중요성은 국가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하나는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이다<sup>1)</sup>. 이를 위해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1) 개정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①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②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으로 ‘진로활동’을 설정하여 권장하고,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 진로 탐색과 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진로교육 이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진로와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는 진로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진로 탐색 및 개척을 권장하고 있다(이지연 외, 2010).

청소년기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일 것이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중요한 사회화의 주체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을 달성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학생회활동으로 대표되는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으로 대표되는 계발활동은 자신의 진로를 자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생회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발견하고 미래 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얻음으로써 진로발달에 중요한 자아에 대한 이해도, 직업에 대한 인식,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강효민, 2003).

진로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직접적인 진로교육 및 경험이 학생의 진로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직접적인 진로교육 이외에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진로의식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진로발달이 중요한 중·고등학교 시기에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다년간에 걸친 학생회활동과 동아리활동 참여 양상에 따라 진로발달 과업을 이루기 위한 준비도, 즉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교 활동 경험의 진로성숙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경험 참여 양상은 몇 개의 대표적인 집단(잠재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집단은 어떤 특징을 보

③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④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출처: 국가교육과정 정보 센터 <http://ncic.kice.re.kr/nation,index.do>)

이는가를 파악하며, 학생의 초기 자아개념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경험 양상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 간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진로성숙에 대한 학교 활동 경험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진로는 한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발달된다는 발달론적 입장에서 Super, Crites 등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능력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변화한다는 것에 주목하여 진로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도로서 진로성숙도를 강조하였다.

진로성숙은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선택을 통합·조정해 나아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03). 진로성숙은 진로계획, 직업탐색, 의사결정,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 5개 차원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이며(Super, 1957),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Crites, 1978). 이에 학생 개인의 진로성숙을 위해서는 자신의 소질이나 흥미 등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일이나 직업에 대한 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등을 익힐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특성 요인, 가정환경 요인, 학교환경 요인을 들 수 있다.

첫째, 개인특성 요인으로 성별의 경우, 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학·한종철, 1997; 김현옥, 1989; 차정은 외, 2007). 또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도 많은데(김정원·김옥인, 2007; 김종훈·김지현, 2008, 신은영·김누리, 2004),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청소년에 비해 교육적·직업적 의사결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하였다(Dillard, 1976).

둘째, 가정환경 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를 들 수 있다.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최수정, 2007),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가정의 자녀는 사업이나 전문직을, 부모가 비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 자녀도 비전문직을 선택하기 쉬우며(Super, 1957),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간관계도 유·무형으로 자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준다(Rosenberg, 1957; 이현립, 2001, 재인용).

셋째, 학교환경 요인으로는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이나 직업 체험, 적성이나 흥미 검사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진로교육 활동과 직접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으나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 등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하여 또래집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해보면서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활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간접적인 활동 중 동아리활동은 동아리라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운영되는 작은 모둠활동으로, 취미나 소질, 가치관이나 문제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에 의해 자생된 자치활동이다(김정주 외, 2003).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에게 신체적·감정적으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소속감을 경험하며 소속 속에서의 활동을 통해 역할의식 및 자신의 능력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자아역량을 개발하게 하며, 집단 내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소유한 의지를 확대형성하고 갈등이나 소외 등을 극복해나갈 기회를 제공한다.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이 사회적 정체성을 찾고(강효민, 2003), 사회적 자아 발달(설승원, 2007)과 사회적 발달(원관희, 2002),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장영화, 2001; 방형심, 2006)을 주어 진로성숙에서 중요한 자아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진로를 계획하는데 영향을 준다(이상일, 2009).

또한 학생회활동은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리더십 등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해나가는 자기주도적 진로관리능력이 중요한 요즘, 동아리를 통해 자신의 흥미나 적성 및 직업에 대해 탐색해보고, 학생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진로성숙에서 중요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이지연, 2007; 이지연·최동선, 2005). 따라서 학교활동은 직업기초능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진로개발역량을 기르는데 있어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임언, 2004).

이와 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등의 경험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된 연구는 성, 연령, 자아개념 등의 개인적 특성, 외적 특성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소득 등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학교 환경요인에 관해서는 적성·흥미 관련 검사 실시나 직업체험 등 직접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위주로 진행되어 왔을 뿐, 학교에서 경험하는 체험활동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규모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활동 경험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학교활동 참여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는 층화군집무선표집법에 의해 선정된 150개교의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23년도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교육 활동과 학습, 인지적·비인지적 성취를 조사하는 연구이다(김양분 외, 2010).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학생설문을 활용하여 학교활동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 완전제거(listwise) 방식으로 제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학생 수는 <표 1>과 같이 동아리활동 참여의 경우 4,940명, 학생회활동 참여의 경우 4,995명이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동아리활동		학생회활동	
		빈도	(%)	빈도	(%)
성별	남	2,574	(52.11)	2,595	(51.95)
	여	2,366	(47.89)	2,400	(48.05)
	전체	4,940	(100.0)	4,995	(100.0)

## 2. 변인구성

### 1) 종속변인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종속변인은 5차년도(2009년)에 조사된 진로성숙도이다. 진로성숙도는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진로성숙도 검사의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문항 수, 문항번호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하위 요인별 신뢰도는 .8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직업태도 요인의 신뢰도는 .61로 다소 낮았다.

<표 2>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신뢰도

종속변인	조작적 정의	문항수	신뢰도
진 로 성 숙 도	계획성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	5 .79
	직업태도	직업의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도	5 .61
	자기이해	진로선택 시 고려해야 할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 등 개인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	6 .80
	진로행동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확인하는 정도	6 .82

### 2) 독립변인

본 연구를 위하여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의 참여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동아리활동 참여는 해당 조사연도에 특별활동 시간 외에 별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동아리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1~4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학생회활동은 해당 조사연도에 반이나 학교에서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것으로, 1~5차년도까지 조사되었다. 각 조사연도별로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 0, '있다'라고 대답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

<표 3> 연도별 동아리활동 및 학생회활동의 참여 여부 빈도와 비율

		1차	2차	3차	4차	5차
동아리 활동 경험	있음	1,858 (37.6)	1,997 (40.4)	1,873 (37.9)	2,124 (43.0)	
	없음	3,082 (62.4)	2,943 (59.6)	3,067 (62.1)	2,816 (57.0)	
	합계	4,940 (100.0)	4,940 (100.0)	4,940 (100.0)	4,940 (100.0)	
학생회 활동 경험	있음	1,056 (21.1)	1,309 (26.2)	1,380 (27.6)	875 (17.5)	814 (16.3)
	없음	3,939 (78.9)	3,686 (73.8)	3,615 (72.4)	4,120 (82.5)	4,181 (83.7)
	합계	4,995 (100.0)	4,995 (100.0)	4,995 (100.0)	4,995 (100.0)	4,995 (100.0)

###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자아개념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기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였다.

초기 자아개념을 통제하기 위해 1차년도에 조사된 자아개념을 공분산으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자아개념은 학생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는지 알기 위해 측정한 것으로, 「KEDI 종합검사 도구 개발 연구」에서 개발한 예비 문항을 참고로 하여, 4개의 하위 영역 즉, 사회자아개념, 가족자아개념, 신체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척도를 제작한 것이다(류한구 외, 2005).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각각 표준점수(평균 0, 표준편차 1)로 전환한 뒤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직업점수는 아버지의 직업을 Ganzeboom & Treiman(2003)의 직업지위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여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소득 수준은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의 자연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경험 패턴을 유사집단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며, 분류된 집단별 차이 검정을 위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우선, M-plus을 사용하여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잠재적 집단 수를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이하 LCGA)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LCGA가 집단의 수나 크기가 사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사용하는 변수나 척도와 관계없이 집단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고려하여 군집의 개수를 논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LCGA에서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LCGA에서 집단수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주요 통계치

통계치	내용	해석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	절대값이 낮을수록 적합한 모델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	$k$ 개와 $k-1$ 개 집단의 모형을 비교한 통계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k$ 개의 집단수가 $k-1$ 개 집단수보다 나은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Entropy	집단 수 구분의 질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값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의 분류가 적합하다고 판단

참고 : Schwartz(1978), Akaike(1987), Nylund, Asparouhov & Muthen(2007)

본 연구에서는 잠재 계층의 구조나 수에 대한 사전 가정 없이 탐색적으로 동아리활동 및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에 따른 잠재계층 수를 분석하였다. 단일집단 모델에서 시작하여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발견될 때까지 집단의 수를 순차적으로 늘려갔으며, 통계적 적합지표 및 분류된 계층의 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초기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했을 때,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의 잠재계층별로 진로성숙도의 하위 요인인 계획성, 자기이해, 진로행동, 직업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통제변인에 성별을 포함하지 않았다.

## IV. 분석 결과

### 1. 잠재계층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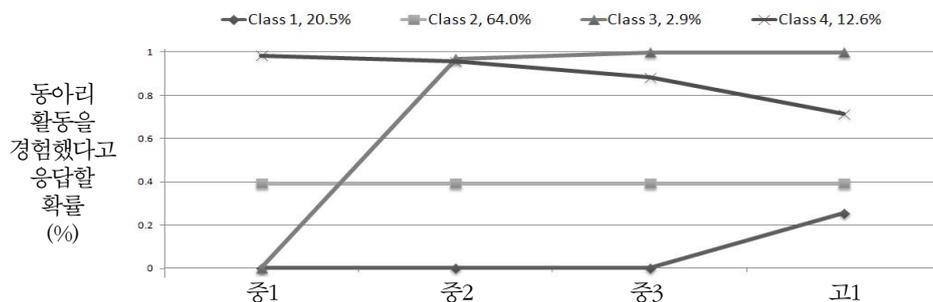
#### 1) 동아리활동

중학교 1학년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측정한 동아리활동 경험 여부에 대한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를 탐색한 결과, 잠재계층 수가 4개일 때의 BIC 절댓값이 가장 작았으며, 조정된 LRT 검증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잠재계층 수를 4개로 하는 성장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5> LCGA를 통한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동아리활동

계층 수	loglikelihood	Number of parameters	AIC	BIC	Entropy	Adjusted LRT p-value
1	-13,267.738	2	26,539.476	26,552.486	-	-
2	-12,665.225	5	25,340.449	25,372.975	0.516	0.0000
3	-12,627.179	8	25,270.357	25,322.398	0.489	0.0000
4	-12,596.385	11	25,214.770	25,286.326	0.703	0.0000
5	-12,587.990	14	25,203.980	25,295.052	0.715	0.0000
6	-12,587.990	17	25,209.980	25,320.567	0.734	0.0000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4개 잠재계층별 동아리활동 경험의 조건항목확률을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분류된 각 집단들을 해당 잠재계층의 특성에 기반하여 class 1은 “비참여집단”, class 2는 “참여저조집단”, class 3은 “후기참여집단”, class 4는 “참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동아리활동 경험 집단 유형 : 4집단 모형의 조건 확률

## 2) 학생회활동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 년도에 걸쳐 측정한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잠재계층의 수 탐색하였다. 그 결과 잠재계층 수가 5개 일 때 BIC의 절대값이 가장 작았지만 Entropy의 값이 .63으로 낮았다. 그 다음으로 BIC가 작은 잠재계층 수 4개 모형이 Entropy의 값도 .80으로 선정기준에 부합되었기에 잠재계층 수 4개로 정하였다.

<표 6> LCGA를 통한 잠재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비교: 학생회활동

계층 수	loglikelihood	Number of parameters	AIC	BIC	Entropy	LRT p-value for k-1
1	-13,032.877	2	26,069.75	26,082.79	-	-
2	-12,285.797	5	24,581.59	24,614.18	0.628	0.000
3	-12,219.038	8	24,454.08	24,506.21	0.760	0.000
4	-12,198.855	11	24,419.71	24,491.39	0.802	0.000
5	-12,175.079	14	24,378.16	24,469.39	0.632	0.000
6	-12,174.130	17	24,382.26	24,493.04	0.663	0.000

최종 선택된 4집단 모형에 대한 조건항목확률 그래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집단별 특성에 따라 76.7%로 가장 많은 학생이 속는 class 1은 “비참여집단”, class 2는 “초기참여집단”, class 3은 “중간집단”, class 4는 “참여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학생회활동 경험 집단 유형 : 4집단 모형의 조건 확률

## 2. 잠재계층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분석

### 1)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의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초기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공분산으로 하는 다변량 공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동아리활동 경험여부에 따른 잠재계층별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의 교정평균을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성숙도 하위영역인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 모두 동아리활동 참여 확률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정평균이 높아졌다. 특히 계획성의 경우 비참여집단 3.82, 참여저조집단 3.97, 후기참여집단 4.08, 참여집단 4.11로 나타났으며, 진로행동은 비참여집단 3.49, 참여저조집단 3.68, 후기참여집단 3.83, 참여집단 3.93으로 나타나, 직업태도와 자기이해 요인에 비해 계획성과 진로행동의 잠재계층 간 평균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동아리활동 잠재계층별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의 교정평균

(공변인: 초기 자아개념, SES)

구분		비참여집단	참여저조집단	후기참여집단	참여집단	전체
	N	1,174	2,747	261	700	4,882
계획성	교정평균	3.82	3.97	4.08	4.11	3.99
	표준오차	.03	.02	.05	.03	.02
직업태도	교정평균	3.91	3.93	3.93	4.03	3.95
	표준오차	.02	.01	.04	.03	.01
자기이해	교정평균	4.39	4.45	4.49	4.56	4.47
	표준오차	.02	.01	.05	.03	.01
진로행동	교정평균	3.49	3.68	3.83	3.93	3.73
	표준오차	.03	.02	.06	.04	.02

사회·경제적 지위와 초기 자아개념을 통제하고 계획성, 자기이해, 직업태도, 진로행동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8>에 따르면 다

변량통계치인 Wilks의 람다는 9.308, 유의수준 .05에서 동아리활동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차이를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 검정에서 동아리활동 참여에 따른 각 집단별로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동아리활동 잠재계층별 다변량 공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s Lambda	단변량 F	자유도	유의확률	$\eta^2$
동아리 활동	계획성	9.308 (p=.008)	18.53	3/4876	.000	.011
	직업태도		4.65	3/4876	.003	.003
	자기이해		7.73	3/4876	.000	.005
	진로행동		34.84	3/4876	.000	.021
공분산	SES		15.364	(p=.012)		
	자아개념		46.555	(p=.037)		

이와 같은 차이가 집단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비검정을 실시한 결과(<표 9> 참조),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시기에라도 참여한 경우 진로방향 및 사전 준비와 계획준비 수준이 더 높았으며, 자신을 더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한 행동이 더 진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저조집단과 후기참여집단을 비교한 결과, 진로행동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동아리활동에 참여한 집단에 속한 학생이 본인의 흥미나 관심사 등을 더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로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측면에서도 더 행동적이라 할 수 있다.

<표 9> 잠재계층 간 대비 검정: 동아리활동

대비 집단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대비1 비참여집단 vs. 참여저조집단	-.152 ***	(.031)	-.018	(.025)	-.060 *	(.026)	-.196 ***	(.032)
대비2 참여저조집단 vs. 후기참여집단	-.108	(.057)	-.003	(.046)	-.045	(.048)	-.149 *	(.060)
대비3 후기참여집단 vs. 참여집단	-.032	(.064)	-.100	(.052)	-.064	(.054)	-.093	(.067)

\* p<.05 \*\*\* p<.001

## 2) 학생회활동

5개년간 연도별 학생회활동의 참여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별로 진로성숙도 하위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초기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계획성의 평균이 비참여집단 3.92, 초기참여집단 4.03, 증가집단 4.17, 참여증가집단 4.24로 나타나 학생회활동에 참여할수록 진로를 위한 준비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 요인도 계획성과 마찬가지로 학생회활동에 참여할수록 더 높은 성숙도를 보였다. 특히 계획성과 진로행동에 있어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표 10> 학생회활동 잠재계층별 진로성숙도 하위 요인의 고정평균

(공변인: 초기 자아개념, SES)

구분		비참여집단	초기참여집단	중간집단	참여증가집단	전체
N		3,990	321	498	129	4,938
계획성	고정평균	3.92	4.03	4.17	4.24	4.09
	표준오차	.01	.05	.04	.08	.03
직업태도	고정평균	3.92	3.95	4.05	4.10	4.01
	표준오차	.01	.04	.03	.06	.02
자기이해	고정평균	4.43	4.45	4.52	4.61	4.50
	표준오차	.01	.04	.03	.07	.02
진로행동	고정평균	3.63	3.72	3.91	4.09	3.84
	표준오차	.01	.05	.04	.08	.0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초기 자아개념을 통제하고 학생회활동 잠재계층별 진로성숙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따르면, Wilks의 람다는 6.423, 유의확률 .005로 유의수준 .05에서 학생회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단변량 F 검정에서 학생회활동 잠재계층에 따라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생회활동 잠재계층별 다변량 공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s Lambda	단변량 F	자유도	유의확률	$\eta^2$
학생회 활동	계획성	6.423 (p=.005)	17.070	3/4932	.000	.010
	직업태도		6.813	3/4932	.000	.004
	자기이해		4.200	3/4932	.006	.003
	진로행동		21.046	3/4932	.000	.013
공분산	SES	15.298 (p=.012)				
	자아개념	46.555 (p=.035)				

구체적으로 어떠한 잠재계층 간 차이가 유의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대비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참여집단과 초기참여집단 사이에는 진로방향 및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계획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기에 참여했던 초기참여집단과 중간집단의 경우 계획성, 직업태도, 진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간집단과 지속적으로 참여가 증가한 집단의 경우 진로 계획의 실천성인 진로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진로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인 계획성과 계획을 실천하는 진로행동의 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초기에만 참여하기보다는 꾸준히 참여할 때 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12> 잠재계층 간 대비 검정: 학생회활동

대비 집단	계획성		직업태도		자기이해		진로행동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평균차	표준 오차
대비1 비참여집단 vs. 초기참여집단	-.109 *	(.051)	-.028	(.042)	-.022	(.044)	-.086	(.055)
대비2 초기참여집단 vs. 중간집단	-.143 *	(.063)	-.100 *	(.051)	-.066	(.054)	-.186 **	(.067)
대비3 중간집단 vs. 참여증가집단	-.071	(.087)	-.051	(.071)	-.095	(.074)	-.185 *	(.093)

\* p<.05 \*\* p<.01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 참여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학교활동 참여 양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자아개념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도 학교활동 참여 양상에 따른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동아리와 학생회활동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진로성숙도 향상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시기는 자신에 대해 발견하는 시기이고,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자신 및 세상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교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의 이러한 발달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생의 자기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자기이해활동이자 진로탐색활동으로서 학교에서의 교과외 활동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과 학생회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자신의 미래 직업과 연결할 수 있다. 주체적인 학생회활동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관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켜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경험하는 활동이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발달시켜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김희수와 김옥희(2007)의 연구에서도 동아리 참여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윤경(2005)은 아르바이트,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학생회활동 여부에 따라 진로성숙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동아리 참여의 영향력은 개인 및 가정 관련 요인에 비해 작았으며, 후자의 연구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양한 활동 경험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들은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특정 학년의 학교활동 참여 경험이 즉시 해당 연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경험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진로의식이 단기간에 성숙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경험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미치는 학교활동 참여 효과를 실제 대규모 종단자료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집단 간 비교의 내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개인 및 가정환경의 특징을 통제하였으며, 현재 참여 여부가 아닌 장기적 참여 패턴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한으로 학교활동 참여가 진로성숙도의 변화·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통제변인의 영향 및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종단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분석하여 진로성숙도와 학교경험활동의 인과관계 및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직업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최인재 외(2009)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교육 방안과 지원 정책과 더불어 현행 진로지도 방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교에서는 각종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인 진로교육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학생회와 같은 각종 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의 진로의식 함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과와 비교과활동에서 명시적,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진로지도 방법의 정밀한 효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이들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법의 조합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진로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효민(2003). 고교생의 교내 동아리 여가활동과 사회적 적응 및 학교공동체의식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2호, pp. 223-236.
- 고재성(2010). 2010 중학교 교감 진로교육 연수 교재. 경기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
- 김봉환 · 김병석 · 정철영(2003).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성경(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pp. 145-170.
- 김소영 · 곽영식 · 김용준(2003). Mixture Model을 이용한 공연관람고객의 시장세분화. 광고학연구, 제14권 제5호, pp. 49-73.
- 김승보 · 방혜진(2010). 학교 진로교육의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 The Hard Review, 제13권 제2호, pp. 93-115.
- 김아영 · 유성경 · 김봉환(2005).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 검사개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김양분 · 임현정 · 신혜숙 · 남궁지영 · 신중호 · 홍세희(2010). 한국교육중단연구(V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한구 · 김양분 · 현주 · 김일혁 · 강상진 · 김현철 · 박성호 · 민병철(2005). 한국교육중단연구(I) : -예비조사 보고서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 김옥인(2007).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수준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제16권 제4호, pp. 75-85.
-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중훈 · 김지현(2008).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습동기와 진로성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제21권, pp. 127-143.
- 김현옥(1989).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관련변인과의 상관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수 · 김옥희(2007). 진로성숙의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4호, pp. 57-68.
- 박완성(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 87-101.
- 방형심(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청소년동아리활동 활성화 요인. 카톨릭대학교 사회

-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승원(2007). 동아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전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광민·차영아·남상인(2008).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의 관계.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1권, pp. 131-153.
- 신은영·김누리(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아동교육, 제13권 제21호, pp. 185-199.
- 원관희(2002). 청소년의 동아리 여가활동과 사회적 적응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한중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 335-349.
- 이상일(2009). 동아리활동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관악합주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0권 제2호, pp. 129-150.
- 이지연·정윤경·이종범(2010).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최동선(2005). 초·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혁신 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현립(2001). 진로상담. 영남대학교 출판부.
- 임 언(2004). 생애진로개발 지원의 현황 및 정책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영화(2001).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이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정윤경(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 249-292.
- 차정은·김아영·이은경·김봉환(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4호, pp. 923-944
-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숙 변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pp. 31-57.

- 최인재 · 김봉환 · 황매향 · 허은영 · 조지혜(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IV: 청소년 진로 직업 지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정(2008). 진로발달이론에서 바라본 주관적 행복.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pp. 318-319). 서울: 한국심리학회.
- Akaike, H.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Psychometrika*, Vol. 52, pp. 317-332.
- Crites(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ttitude Scale*. Monterey, CA : CTB, McGraw-Hill.
- Dillard(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s of Suburban and Urban Middle- and Urban Lower-Class Pre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No. 3, pp. 311-319.
- Englander(1960). A psychological analysis of vocational choices; Teach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7 No.4, pp. 257-264.
- Oppenheimer, E. A.(1966). The relationship between certain self-constructs and occupational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13 No. 2, pp. 191-197.
- Ganzeboom, H. B. G., & Treiman, D.(2003). Three Internationally Standardised Measures for Comparatives Research on Occupational Status. pp.159-193. In J. H. P. Hoffmeyer-Zlotnic, & Wolf, C.(Eds.), *Advances in Cross-National Comparison. A European Working Book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pp. 159-193). NY: Kluwer Academic Press.
-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en, B. O.(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14 No. 4, pp.535-569.
- Schwartz, G.(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Vol. 6, pp. 461-464.

## ABSTRACT

### The Effects of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 Activities on Their Career Maturity

Im, Hyun-Jung\* · Kim, Nan-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udents' experience of school-activities on their career maturity in secondary education. Using the data from the 1st-5th years taken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udents wer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according to whether they had experienced club or student-council activities through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In addition, after identifying the differences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ubcategories among latent classes,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school-based activities and the changes produced were analyze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produced significant effects upon career maturity. As a result, students were divided into four latent classes; non-participating, low-participating, later-participating and participating groups, based on their changing patterns of club-activity experience. According to the students' experience of student-councils, four latent classes were classified as non-participating, earlier-participating, average, and increasingly-participating groups. Moreover, after controlling for students' SES and self-concepts, the career maturity of each latent cla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experience of club-activities and student-council experience. In conclusion, club-activities and student-council experience in school had a number of positive effects upon career maturity.

**Key Words** : career maturity, school-activity, student-council,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투고일 : 6월 14일, 심사일 : 8월 3일, 심사완료일 : 8월 12일

---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